

5분 자유발언

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

제2차 본회의 2017. 9. 15.(금) 10:00

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언



세종특별자치시의회

윤형권의원

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언

-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 여러분!
그리고 고준일 의장님과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형권입니다.
- 저는 오늘,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어떻게 구축돼야 하는지에 대해 발전적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.
- 아시다시피, 우리 세종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인구와 기관들을 분산시켜 인구 집중의 문제를 해결하고, 국가를 고르게 발전시키고자 특별히 설치된 지역입니다.
- 이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기초와 광역 사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조직 형태를 가지있습니다. 또한, 세종시가 출범된 지 5년 동안 인구 27만명을 달성하셨고, 40개의 중앙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이 이전하여 행정중심도시로서 모습을 갖춰 가고 있습니다.
- 하지만, 아직도 다수의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그리고 청와대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, 27만 세종시민은 물론 국민들이 염원하는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추기에는 한참 부족한 실정입니다.
- 이런 가운데 다행히도 민주당-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세종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자치분권의 시범도시로 완성하고,

-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시 이전, 국회분원 설치 및 행정수도로서의 인프라 조성, 세종시 지원 확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.
- 어떠한 수준으로 우리 시를 자치분권 도시로 만들 것인지,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지에 대하여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전문가 모두 갑론을박하고 있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.
-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, ‘연방제 수준의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’ 마련 및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자치, 재정, 복지, 관광, 환경, 경제 등 각 분과별로 추진 전략을 세우고,
-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「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TF」팀을 구성하여 각 분과별 전략을 컨트롤 하고 있으며,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‘교육자치 분과’,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‘의회 분과’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이에 본 의원은 세종시가 선제적으로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무엇인지, 어떠한 수준의 자치분권 도시를 원하는지를 정부에 적극 제시하고, 대통령 공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다음과 같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.
- 첫째, 민·관·학이 상호 협력하여 대응하는 TF 팀 구성 등의 추진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.
- 저희 세종시의 경우,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들이 입주해 있고, 시민들 면면이 공무원, 연구원 등 정책 전문가들이기 때문에

국가 정책반영에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.

또한, 신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하신 지역원로와 시민단체들도 다수 활동하고 있습니다.

- 이러한 세종시의 사회적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, 집행부와 의회, 민간 그리고 전문기관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**민·관·학 협의체**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.

- 둘째, 행정수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
“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이다”라는 내용을
헌법개정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.

개헌안이 마련되기 전에 **민·관·학 협의체**를 통하여 행정수도가 무엇인지, 그리고 필요성은 무엇인지 명확히 하여 구체적인 청사진을 개발하고, 국민토론회, 언론 홍보 등을 통하여 정부와 국민들에게 행정수도 도입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.

- 셋째, 세종시만의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어 제시하여야 합니다.

정부에서 자치분권 도시의 청사진이 없으므로, 광역과 기초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세종시의 특성에 맞춘 자치 분권 모델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.

이 모델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세재정권 부여, 자치경찰제 실시, 자치입법권의 확대, 조직 및 인력을 결정하는 자치조직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
-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!

- 세종시는 출생률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 중에 하나이고,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절호의 맞이라고 있습니다.
- 행정수도의 완성과 세종특별자치시만의 자치분권 모델 시행은 우리 시의 위상을 더욱 강화시키고,
시민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며,
- 국가 균형 발전과 우리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살게 하는 대의도 품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
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-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
2017년 9월 15일

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윤 형 권